



한화  
아워홈 인수 결정  
경영권 분쟁 등 과제  
L1



Life

유한양행  
연매출 2조 돌파  
신약개발 속도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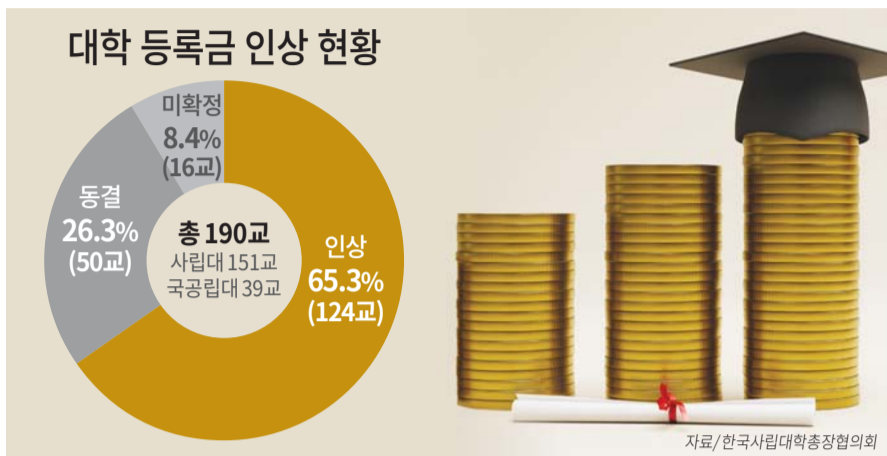
# 대학 65%, 등록금 인상...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불가피”

124곳 인상, 50곳 동결, 16곳 미정  
인상률 '5.00~5.49%' 가장 많아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국 190개 대학 65.3%에 해당하는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은 동결을 결정했고, 16곳은 아직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1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사립 151곳과 국공립 39곳 등 총 190개 대학 중 124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특히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한 곳은 10개교(25.7%)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립대 수도권 64개교 중 55개교(85.9%)가, 비수도권 87개교 중 59개교(67.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학은 수도권 8개교 중 3개교(37.5%), 비수도권 31개교 중 7개교(22.6%)가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대학은 50개교로 전체 대학의 26.3%를 차지했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 국공립대학은 27개교다.

전체 대학 중 8.4%인 16개교는 아직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124개교의 인상률을 보면, 53개교(42.8%)가 '5.00~5.49%'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8개교(사립 5개·국공립 3개)는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으로 정한 5.49%까지 올렸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인상률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II유형 국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려고 가능한 한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4.00~4.99%(51개교, 41.1%) ▲3.00~3.99%(8개교, 6.5%) ▲2.00~2.99%(2개교, 1.6%) ▲1.00~1.99%(2개교, 1.6%) 순이다.

사총협은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도 대학 평균 등록금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000원이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000원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6000원, 비수도권은 627만40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000원) ▲예체능(782만8000원) ▲공학(727만7000원) ▲자연과학(687만5000원) ▲인문사회(600만3000원) 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학 자율화와 역행하는 조치로,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지금 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규제 개선과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글로벌대 통합 지연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교육부, 통합 추진 이행상황 점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대에선 정된 경우, 대학 통합이 지연되면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도 환수되는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벌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벌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마련된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은 협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합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합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벌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 킨텍스, 작년 매출 949억... 역대 최대 실적

전시장 임대 수요 창출 등 수익성 강화

킨텍스는 12일 2024년 연간 재무 성과를 집계한 결과 총 매출 949억 원, 당기순이익 216억 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매출이 약 23%, 당기순이익이 31%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매출 873억 원, 순이익 160억 원)을 뛰어넘는 성과다. 이 같은 실적 성장의 배경에는 이재율 대표이사의 강력한 경영 혁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조직 혁신을 통한 흑자경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6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재무 성과를 실현하며 킨텍스의 퀀텀 점프를 이끌었다. 특히, ‘수익 극대화·지출 효율화’를 기조로 한 경영 원칙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킨텍스는 OTT 콘텐츠 촬영 등으로 전시장 임대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 신규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런칭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한편, 킨텍스는 올해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TOP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일반학교와 지원격차 해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기존에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된다.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95.75점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선 2023년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14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보통’(다 등급)에서 최우수(가 등급)로 2 단계 상승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4 | 해질 / 18:09

2월 13일 (목) 음력 : 1월 16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8/5, 동두천 -8/5, 가평 -8/4, 파주 -10/4, 서울 -5/5, 양평 -7/5, 수원 -3/5, 용인 -3/5, 평택 -7/5,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쇼트트랙 대표팀, 하얼빈 동계AG 귀국 하루 만에 밀라노로  
▲피겨 김채연, 첫 동계AG 무대에서 쇼트 개인 최고 점 '71.88점' /사진 뉴시스

▲커쇼, 다저스와 1년 연장 합의... '원클럽맨' 이 어간다  
▲제59회 슈퍼볼, 미국 내 평균 시청자 1억2770만명...역대 최다 기록

▲레알마드리드, UCL 16강 PO 1차전서 맨시티에 3-2 역전승  
▲'K리그1 챔피언' 울산, 시즌 대장정 돌입...부리람과 ACLE서 격돌